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마 6:9-13)

I. 말씀 나누기 (10분) - 성경 본문을 한 번 더 읽으신 후 말씀을 나눕니다.

1.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당장에 지상에서 천상으로 옮겨진 것도 아니고,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이 된 것도 아닙니다. 아직 우리는 연약함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히 4:16)

2. 요즘처럼 풍요로운 시대에도 이런 기도를 해야 할까요?

앞서 가르쳐주신 간구에 비하면 갑자기 수준이 너무 낮아진 것 같고, 너무 육적인 기도인 것 같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기도는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기도처럼 여겨지게 되기도 합니다.

기도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요 염치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 그러면 이 기도의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1) 먼저 이 기도문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도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 인생의 육체적 생명과 생존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므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2) 둘째로 '우리에게' 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나 혼자만 먹고 살기 위한 양식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먹고 함께 살기 위한 양식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3) 셋째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은 만나가 내리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염려하며 이틀치 사흘치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둔 만나를 다 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은 항상 오늘 있을 양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일을 염려합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서 염려가 떠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4.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심을 절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좇아서는 안되겠습니다.

2) 둘째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섬김입니다.

3) 셋째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또 내일 것까지 욕심 부리지도 말고,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만으로 감사합시다.

II. 삶의 적용 (25분)

1.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의 강조점 중에서 그동안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2. 이 기도를 나 자신의 말로 풀어서 기도문을 작성해 봅시다.